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은퇴 남성의 손자녀 양육 경험에서 나타나는 학습 양상에 관한 연구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전 샛 별

은퇴 남성의 손자녀 양육 경험에서 나타나는 학습 양상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한 숭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전 샛 별

전샛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은퇴 남성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양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은퇴 후에 남성 노인으로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조 양육자에서 주양육자로 역할이 변화되면서 어떤 갈등과 변화를 경험하고 대처해 나가는가를 연구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은퇴 후 남성이 할아버지가 되어 부양육자로서 손자녀 양육을 하게 될 때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 2) 손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부양육자에서 주양육자로 역할이 바뀌면서 어떠한 갈등을 겪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학습해 나가는가? 3) 손자녀 양육을 경험하면서 양육자인 자신과 양육대상인 손자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이른 은퇴를 경험하고 손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A시에 살고 있는 연구자의 아버지를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고, 연구참여자가 쓴 양육일기, 강의자료 등을 통해 참여자가 손자녀의 양육과정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갈등과 대처 과정, 깨닫게 된 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은퇴를 앞두고 있는 '예비은퇴자'는 은퇴 이후의 경제활동과 경제활동 이외의 생활세계에서의 삶을 모색한다. 자신의 전공과 연계하여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이

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다. 전공분야에서는 젊은 인력에 비해서 참신성이 부족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계속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시기의 할아버지에 대한 역할은 '자상한 할아버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머무른다.

예상보다 이른 은퇴와 경제활동과의 단절, 자녀의 맞벌이, 자녀의 건강상의 문제로 은퇴자는 추상적인 '자상한 할아버지'에서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좀 더 적극적인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의 은퇴자의 역할은 아직은 주양육자인 손자녀의 할머니를 도와주는 역할에 머무르며 주로 남성으로써 '힘을 쓰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둘째,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자녀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은퇴자가 '할아버지'로서 주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이를 기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남성 노인으로서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새벽에 깨서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토막잠을 자고, 헌 데가 나고, 손자녀에게 요리를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해 손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체력적인 한계와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남성 노인'으로서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또 아이 양육에 있어서 자신을 '보조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의 부모를 대신해서, 자신의 배우자를 대신해서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자신의 역할의 범위를 고민하게 된다. 함부로 화를 낼 수도 없고, 어디까지 자신이 해 주어야할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아 혼란을 겪게 된다.

손자녀 양육에 있어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손자녀를 어떤 기준으로 키울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손자녀가 과연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인가 노심초사하게 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손자녀가 자랄 수 있도록 유아발달이론 서적을 읽고 그 이론을 토대로 손자녀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또래집단에서 정보를 얻음으로써 손자녀가 또래집단과 유사한 발달을 보이는지, 그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필요를 채워준다. 이러한 내용들을 블로그에 양육일기의 형태로 손자녀의 발달내용과 함께 기록함으로써 손자녀가 그 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손자녀를 기르는 또 다른 기준은 아이의 '부모의 기준'이다. '부모의 기준'이란 신체적·언어적 발달의 기준이 아닌 아닌 삶의 가치관·교육관을 말한다. 손자녀의 양육책임이 지금은 '주양육자'인 할아버지에게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손자녀의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치관의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부모의 기준'에 맞게 손자녀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모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에게 '결정권'을 주고 아이의 문제를 선택하게 한다.

은퇴자인 '할아버지'로서 손자녀를 주양육자로 양육하는 일은 상황적인 여건에 의해 일어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손자녀를 양육하는 데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은 은퇴자인 '할아버지'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자녀를 양육한 경험은 은퇴로 인해 경제활동의 단절과 상실감을 경험한 '할아버지'에게 잠시 그 어려운 상황을 잊고 현 상황에 몰두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주양육자로서 힘들었지만 자신을 가장 좋아하는 손자녀의 반응을 보며 자신이 손자녀를 잘 키운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손자녀와 노는 시간이 '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쉴 수 있게 해 주는 '쉬는 시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느낀다.

셋째, 손자녀가 성장해 감에 따라 은퇴자인 '할아버지'의 손자녀 양육 경험도 더 많아지게 된다. 손자녀 양육 경험이 쌓이면서 노인인 자신에 대해 고찰하게 되고, 노인으로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관심의 영역이 확장된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하게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마음 깊이 공감하고 자신의 양육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된다.

손자녀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게 된다. 과거에는 손자녀를 '필요를 채워줘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지만 대화가 통하고 할아버지와 손자녀로서 많은 교감을 나누면서 서로를 '동반자'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존재에서 '배울 것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손자녀가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이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할아버지의 손자녀 양육경험을 연구함으로써 그것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은퇴 이후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 손자녀 양육경험을 드러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가 1명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의 손자녀 양육경험의 다양한 변인과 맥락들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주요어: 손자녀 양육, 할아버지, 비자발적 은퇴, 황혼육아, 남성 노인, 노인학습자

학 번: 2005-23689

목 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문제 ····· 4

Ⅱ. 선행연구 고찰 ····· 6
1. 남성 노인의 비자발적 은퇴 ····· 6
2. 남성 노인의 손자녀 양육 ····· 9

Ⅲ. 연구방법 ····· 13
1. 질적 연구 ····· 13
2. 연구 절차 ····· 14

Ⅳ. 생애전환기: 비자발적 은퇴와 할아버지됨 ····· 23
1. '은퇴자'로서의 삶을 고민하기 ····· 23
1) '은퇴 하면 뭐 하지' ····· 23
2) '은퇴하면 어떤 할아버지가 될까' ····· 26

2. '할아버지'로서의 삶 시작하기 ····· 27
1) '할아버지 노릇 제대로 해 보자' ····· 27
2) '퇴근해서 집에 오면 같이 봐주지' ····· 29

Ⅴ. 주양육자로서 ‘할아버지’ 되기 ····· 31

1. ‘내가 애를 전적으로 봐 줘야지’ ····· 31
 1) ‘수입이 있는 사람이 일해야지.
 내가 시간이 제일 많아’ ····· 31
 2) ‘애를 본 경험이 있으니까 자신 있었지’ ····· 33
 3) ‘내 손녀를 포기하는 건 내 딸을 포기하는 거잖아’ ····· 34

2. ‘남성 노인’인 ‘할아버지’로서의 한계 ····· 36
 1) ‘토막잠을 잤지, 헌 데가 많이 났어’ ····· 36
 2) ‘요리를 못하니까 손녀한테 미안해’ ····· 38

3. ‘기준’에 맞춰서 손자녀 양육하기 ····· 41
 1)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 노심초사 ····· 41
 (1) 유아발달이론 서적 읽고 확인하기 ····· 43
 (2) 또래집단에서 정보 얻기, 비교하기 ····· 44
 (3) 블로그에 양육일기 쓰기 ····· 47

 2) ‘부모 기준에 맞춰서 키워줘야지’ ····· 49

4. 은퇴자인 ‘할아버지’로서의 삶의 의미 찾기 ····· 51
 1) ‘애를 안 봤으면 내가 더 힘들었을 거야’ ····· 51
 2) ‘애가 나를 제일 좋아하잖아’ ····· 53
 3) ‘손녀는 나한테 힐링이야’ ····· 54

Ⅵ. 자신에 대한 이해와
손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 ····· 57

1. '노인'으로서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영역 확장 ····· 57
1) '내가 노인이니까 노인에 대해 잘 알아야 돼' ····· 57
2) '손자녀를 키우는 할머니들과 친구가 돼' ····· 59

2. 손자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 ····· 60
1) '내 인생의 동반자야' ····· 61
2)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어' ····· 64

Ⅶ. 요약 및 결론 ····· 64

1. 요약 ····· 64
2. 결론 ····· 67
1)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은퇴 ····· 67
2) 할아버지로서 손자녀 양육경험과 학습 ····· 69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 70

참고문헌 ····· 72

Abstract ····· 76

표 차례

<표 Ⅱ-1> 남성의 퇴직연령대별 분포 ····· 7
<표 Ⅲ-1> 연구 참여자 정보 ····· 19

Ⅰ. 서론

1. 문제제기

2000년에 인구의 7.2%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나라는 201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천명으로 전체의 13.1%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2060년에는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5).

노인 인구의 증대는 노인과 관련하여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복지정책, 의료정책 등을 마련하고 노인 관련 물품들을 개발하는 등 노인 중심 사회로의 준비를 활발히 하고 있다.

노인에게 있어서,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 특히 남성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애적 사건은 바로 '은퇴'이다. 개인이 일생동안 종사해 온 직업으로부터의 은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후기단계(제3의 인생)로 들어가는 전환기에 와 있음을 알리는 이정표적인 사건이다(김애순·윤진, 1995). 남성 노인들은 이 시기에 은퇴를 경험하면서 직업 세계에서 분리되고 경제적 보상과 생활의 규제, 정체성, 사회적 관계의 기반, 의미 있는 생활 경험들, 그리고 평생학습의 안정된 장을 빼앗기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한정란, 2010: 318).

또한 외환 위기 이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경제활동인구의 기준이 되는 65세에 훨씬 못 미치는 나이에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조기은퇴는 은퇴자로 하여금 은퇴를 기점으로 아무런 준비없이 직업의 맥락에서 벗어나

새롭게 개인의 삶을 재편성하고 이에 적응하도록 요구한다(성미애·옥선화, 2002).

남성 노인의 은퇴 이후 또 다른 큰 역할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자녀양육을 하는 역할이다. 손자녀양육은 주로 할머니들에 의해서 행해져왔으나 최근 들어 맞벌이의 증가로 할아버지가 손자녀양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이해숙·신효균, 2013).

평생학습의 영역에서 남성 노인의 은퇴에 관한 연구는 주로 퇴직을 준비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선태무·.최은수, 2012) 퇴직 자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학습의 현상을 포착하기보다는 퇴직을 준비하는 남성 노인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퇴직 이후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남성 노인의 손자녀양육에 관한 것 역시 평생학습의 주된 주제가 되지는 못했다. 남성의 영역은 주로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공적인 영역으로 여겨졌던 것과는 반대로 가정이라는 영역은 남성 노인이 그 안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삶의 주된 터전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남성 노인의 삶의 새로운 큰 축으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남성 노인의 은퇴와 손자녀양육의 시작은 직장이라는 세계와의 단절 이후 가정이라는 새로운 세계로의 조우라고 할 수 있다. 직업세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을 재편성한다는 것은 직장이 아닌 영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그것에 적응하여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남성 노인의 은퇴 후의 삶은 학습의 경험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

서 경험하고 그것을 내적으로 통일성과 전일성을 획득하는 생애적 과정이 바로 평생학습이기 때문이다(한숭희, 2009:97).

남성 노인의 은퇴 후의 삶에서 가정은 가장 큰 축이며 기본적인 생활 세계가 된다. 직장세계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들은 노년의 삶에서 남성 노인이 학습자로서 통일성과 전일성을 획득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년의 삶에 있어서 가정 세계에서 일어나는 남성 노인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노년의 그들의 학습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남성 노인의 손자녀 육아의 경험 역시 노년의 학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남성 노인의 은퇴 후 손자녀 양육의 경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전까지의 연구는 주로 할머니들의 손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다(김은주·서영희, 2007; 김윤주·방미란, 2011; 안희란, 김선미, 2015). 할머니의 경우 할아버지보다는 은퇴라는 경험을 적게 하고 손자녀 양육의 경우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자녀 양육에도 쉽게 참여를 하게 된다. 또 남성 노인의 손자녀 양육의 경험에 관한 연구가 소수 있기는 하지만(이해숙·신효균, 2013) 그 연구들은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 경험과 마찬가지로 양육하면서 보람되고 힘들었던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성 노인이 은퇴 후에 손자녀 양육을 하는 경험에 대한 이해는 은퇴 후 남성 노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학습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성 노인의 손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련의 '학습'의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은퇴 후에 손자녀를 양육하는 남성 노인의 양육 경험에서 나타나는 학습의 양상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은퇴 후 남성이 할아버지가 되어 부양육자로서 손자녀 양육을 하게 될 때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

비자발적 '은퇴'와 '할아버지 됨'은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생애전환기에 은퇴자로서 손자녀양육을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손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부양육자에서 주양육자로 역할이 바뀌면서 어떠한 갈등을 겪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학습해 나가는가?

은퇴자가 '도와주는' 역할이 아닌 손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때 기존의 손자녀 양육과는 다른 어떤 갈등을 겪게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학습해 나가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손자녀 양육을 경험하면서 양육자인 자신과 양육대상인 손자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양육자로서 남성 노인인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관심의 영역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 그리고 과거에 양육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손자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고찰

1. 남성 노인의 비자발적 은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인구의 7.2%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천명으로 전체의 13.1%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2060년에는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5).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외환 위기 이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경제활동인구의 기준이 되는 65세에 훨씬 못 미치는 나이에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평균 퇴직 연령을 살펴보면 50대전·후반에 가장 많이 퇴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50세 이상 은퇴한 남성 임금근로자들 가운데 55.0%는 비자발적 이유로 은퇴를 했다(노동부, 2008: 24). 이러한 비자발적인 조기은퇴는 은퇴자로 하여금 은퇴를 기점으로 아무런 준비없이 직업의 맥락에서 벗어나 새롭게 개인의 삶을 재편성하고 이에 적응하도록 요구한다(성미애·옥선화, 2002).

<표 Ⅱ-1> 남성의 퇴직연령대별 분포 (%)

	퇴직연령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남성	47.72	21.09	18.87	7.77	2.59	1.97

*자료: KLIPS(2003) 「중고령자부가조사」 자료 (노동부(2008:25)를 재구성)

일반적으로 '은퇴'의 개념은 퇴직하는 시점으로 보는 '사건'의 개념, 직업적 지위에서 '퇴직자'라고 하는 '역할'로의 전이, 퇴직이라는 사건을 전후해서 진행되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보는 관점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한정란, 2010). 은퇴는 인생에서 한번은 경험하는 사건으로 은퇴 이전과 은퇴 이후의 삶이 연속선상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김나연 외, 2007: 6) 은퇴를 일시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 보다는 하나의 '과정'(Atchley, 1976)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은퇴가 가지는 부정적 의미를 강조하였다(김나연 외, 2007). 은퇴를 하면서 오랜 시간 경험했던 직업세계와 단절되면서 일 중심으로 살아왔던 남성노인들이 '일을 하면서 했던 역할'에서 분리되면서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다(김애순·윤진, 1995; 이가옥·이지영, 2005; 최가영 외, 2001; 한혜경,2003). 이러한 경향은 은퇴 이후의 다른 영역보다 일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남성노인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성미애, 1999).

이후의 은퇴 후의 삶의 적응과 만족도, 심리상태에 관한 연구들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은퇴를 연구하였다. 임병우 외(2013)는 정년퇴직 후의 심리적 특성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퇴직자들을 퇴직에 대한 인식, 성역할에 대한 태도, 퇴직에

대한 인식에 따라 목표성취형, 목표대기형, 현실수용형, 현실부적형으로 나누었다. 김명자 외(2005)는 은퇴 후의 삶에 적응 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가족만족도라고 보고 그 외에 퇴직 수용, 퇴직에 대한 인식,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이 변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은퇴 후의 삶의 적응과 만족도, 심리상태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은퇴 후의 삶에서 가족에 관련된 변인이 적응과 만족도, 심리상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임병우 외, 2013; 김명자 외, 2005; 이승원 외, 2008). 이는 퇴직 후 직업세계에서 가정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그 중심세계가 변하면서 새로운 활동의 장인 가정에서 그 역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가 은퇴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 중심으로 볼 때에는 '일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은퇴를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의 기회'로 여기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가족관계에서의 친밀감이 은퇴 이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은퇴 이후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험도 남성노인이자 은퇴자로서의 할아버지의 위치를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손자녀 양육을 하는 할아버지의 경우 대부분 은퇴를 한 경우가 많다. 은퇴를 한 이후에야 손자녀를 양육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아버지들의 경우 은퇴자로서의 사회적·심리적 상황을 토대로 그들의 손자녀 양육경험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할아버지가 은퇴 이후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험은 은퇴가 삶의 전반에 걸친 '과정'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Atchley, 1976) 양

육 초기뿐만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은퇴자로서의 남성노인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은퇴 이후 초기에 단절적으로 심리적인 우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가족관계에서의 적응과 만족도에 따라 '은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남성노인의 손자녀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의 증대에 따라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자녀 육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여성의 49.5%가 고용되어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10가구 중 4가구에 해당한다(통계청, 2015). 여성의 사회진출 높아짐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육아지원 인프라가 미흡하고 기관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이해숙·신효균, 2013). 따라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조부모의 도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기준 조부모의 육아비율이 53.0%로 절반이 넘는다.

조부모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하는데 이 때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지에 대해서 Thomas(1989) 3가지로 그 역할을 제시했다. 첫째, 심리적이거나 금전적인 지지를 해 주는 간접적 역할, 둘째, 손자녀들을 돌보고 조언을 해 주며 용돈이나 선물을 주며

상호작용하는 직접적인 역할, 셋째, 가족의 뿌리를 제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상징적 역할로 조부모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또 Atchley(2000)는 조부모를 첫째,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대리모, 둘째, 가족의 역사를 계승하는 자, 셋째, 손자녀에게 훈계와 성역할 정체감 형성을 지원하는 자, 넷째, 노화와 미래의 가족관계, 조부모역할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 모델, 다섯째, 옛날 이야기를 통해 손자녀의 상상력을 촉진하는 정서적 지지자, 여섯째, 물질제공자, 일곱째, 가족가치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가족관계의 친밀성을 유지시켜주는 자 등으로 보았다. Thomas와 Atchley가 보여주는 조부모로서의 공통적인 역할은 '부모를 대신하여', '가족의 가치를 유지시켜 주고', '경제적으로 물질을 제공해 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할머니나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관한 것들이 많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어 왔고, 손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인식과 역할이 계속되어져 왔기 때문이다(배진희, 2007).

할머니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들에는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부모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봐 주면서 내 '핏줄'을 보살펴 주고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는 있지만 양육과 가사일을 병행하며 거기에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시간적으로 육아에 얽매여 다른 여가 활동을 하거나 대인관계를 맺기 힘든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으로 연구에서 나타났다(김희동, 2013; 이화진, 2004; 진지혜· 안정신, 2012)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활

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할머니들의 양육경험 자체에 대한 질적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스트레스 자체에만 주목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포함한 만족감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은주·서영희(2007)는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키우면서 보람과 애정을 느끼고 가정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만족감을 느끼고는 있지만 자신만의 시간이 부족하고 가족과의 갈등을 겪는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봤다. 또한 자녀를 위한 의무감·내 핏줄을 돌봐 준다는 만족감·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렇게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들도 있다(김윤주·방미란, 2011; 안희란·김선미, 2015; 김은주, 서영희; 2007).

최근 할아버지들이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와 함께 할아버지의 손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부모를 함께 한 연구들은 많은데 할머니를 제외한 할아버지들의 손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함께 연구한 것은 남성노인으로서의 할아버지의 역할보다는 할머니·할아버지의 공통적인 경험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할아버지의 손자녀 양육에 관련된 연구로는 이해숙·신효균(201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으로서 육아에 뛰어들게 됨, 남성이어서 육아에 곤란을 겪음, 남성이어서 육아문제로 더 스트레스를 받음, 남성이라 육아에서 더 유리한 일도 있다고 생각함, 남성이기 때문에 손자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는 듯함'이라는 5가지의 중심의미를 도출해 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할아버지로서 손자녀 양육에서 느끼는 '할아버지'만의 육아경험을 드러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아버지들의 손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는 아직 사회적인 관심

에 비해서 연구주제로서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머니와는 다를 수 있는 양육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할아버지'가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즉, 은퇴자로서의 상황, 노인으로서의 상황, 가족 안에서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속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은 '경험되는 과정'이며, 평생학습이란 이러한 모든 종류의 '획득된 변화'로서 경험이 일어나는 전 생애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 생애적 과정이다(한숭희, 2009), 할아버지의 손자녀 양육경험은 '은퇴'라는 생애전환기를 맞이하면서 기존에 잘 참여하지 않았던 아이의 양육에 참여하게 되는 새로운 경험이다. 그 경험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것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경험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전 과정은 노년의 삶에서 남성 노인이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남성 노인의 손자녀 양육경험은 '양육'이라는 현상 자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학습'의 측면에서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질적 연구

이 연구에서는 은퇴 후에 남성 노인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학습의 양상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남성 노인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험’한다는 것은 기존에 직업세계에서의 주된 경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고 이는 직업세계와의 단절과 가정세계로의 진입이 맞물리는 시기에 일어나게 된다. 새로운 생활세계에서의 낯선 경험을 통해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게 된다.

남성 노인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접하면서 다양한 갈등상황을 만나게 된다. 손자녀 양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갈등 상황에 대처해 나가면서 그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의미들을 재구성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된다.

질적 연구는 사람들의 의미 구성과정을 파악하고 그렇게 구성된 의미를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곽영순, 2009:50).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은 연구 참여자의 구술을 통해 드러나고 연구자는 그 구술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포착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 노인이 ‘손자녀 양육’이라는 낯선 경험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해체·분석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 방

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은퇴 후 생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남성 노인의 손자녀 양육 경험'을 포착하고 그것의 독특성과 복잡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2. 연구 절차

1) 연구 참여자 선정

은퇴한 할아버지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연구 참여자가 어느 시기에 은퇴를 했는지, 손자녀 양육경험이 몇 개월 혹은 몇 년 이상인지, 또 어느 정도 양육에 참여했는지가 연구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손자녀 양육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인지하고 자신이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손자녀 양육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정하고 연구 참여자를 찾았다. 첫째, 은퇴의 시기와 손자녀 육아의 시기가 겹치거나 두 시기가 거의 근접한 남성 노인이다. 시기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은퇴를 하기 이전에는 손자녀를 양육한다고 해도 극히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퇴자로서도,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아버지로서도 유의미한 경험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퇴 이전의 양육경험보다는 은퇴와 거의 시기가 겹치거나 은퇴 이후에 양육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손자녀를 주양육자 혹은 공동양육자로서 양육한 경험이 최소 만1년 이상이 된 사람이다. 유아는 생후 만1년이 되면 옹알이를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대화'가 가능한 여건에서는 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셋째, 자신의 양육경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양육의 기간이 오래 되면 자신이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의 경험에 대해서는 기억하기 쉽지만 과거의 오래된 경험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양육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이나 기억할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제보자가 있다면 양육경험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은퇴 후에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제보자로 찾았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아버지의 경우 아이엄마들에 비해 서로 아이양육을 공유하는 공간이나 모임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자의 딸을 양육해주고 있는 연구자의 아버지의 추천으로 아버지 주변에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을 살펴보았다.

연구자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모두 3명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하였다. 이 3명은 은퇴 후 손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약 3-7년 정도 손자녀를 양육해 오고 있었다. 이 중에서 한 명은 보조양육자로서 2-3시간 정도 손자녀와 놀아주면서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고, 다른

1명은 공동양육자로서 부인과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자의 아버지는 2016년 2월을 기준으로 볼 때, 은퇴를 전후하여 친손자를 보조양육자로서 1년, 외손녀를 보조양육자로서 9개월, 주양육자로서 부인의 도움 없이 5년5개월을 양육하였다. 이 중 친손자를 양육한 마지막 한 달과 외손녀를 양육하기 시작한 한 달은 시기상으로 겹친다. 따라서 아버지가 보조양육자로, 주양육자로 손자녀를 양육한 기간을 합치면 약 만7년이 된다.

이 중에서 은퇴 후에 손자녀를 기르면서, 공동양육자나 주양육자로 손자녀를 돌보고, 손자녀양육 경험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보조양육자로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공동양육자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과 주양육자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연구자의 아버지를 놓고 봤을 때, 연구자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손자녀의 양육 경험을 기록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의 아버지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주양육자로서 외손녀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블로그에 양육일기의 형태로 262편의 기록을 해두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연구자가 아버지가 연구자의 딸을 양육하고 있는 현장을 관찰하기 용이하고, 또 그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기 쉽다. 평상시에 아이를 양육할 때 아버지와 양육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자주 상의하고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면서 협력해 나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하기도 더 쉬울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구자의 아버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가족이기 때문에 현장을 관찰하고 연구 참여자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용이한 점이 있

지만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가 존재한다. 연구자가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편견이 아버지의 말을 연구자의 입장, 딸의 입장에서 곡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면담을 할 때 면담의 내용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면담 자료와 함께 블로그에 쓴 육아 일기, 강의 자료, 기고글 등을 읽고 분석하여 면담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각의 의미를 분석·해석하였다.

2) 자료의 수집

이 연구의 주요 자료는 심층면담을 한 자료, 블로그 양육일기, 강의 자료, 기고글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의 아버지를 주된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나이는 2016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표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참여자 정보

성명	성별 (나이)	은퇴 이전 직업	은퇴 이후 직업	양육 역할	양육 형태	양육 기간
김철수	남 (만62세)	대학교수	프리랜서 강사 -손자녀 교육관련	보조양육자 (친손자)	저녁에만 봐줌 (친손자)	1년
				주양육자 (외손녀)	자녀와 함께 거주	9개월 (보조양육자) 5년5개월 (주양육자)

					(외손녀)	

※친손자와 외손녀를 양육한 기간 중 1개월은 서로 겹친다. 따라서 손자녀를 보조양육자로서, 주양육자로서 양육한 총 기간은 2016년 2월을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의 아버지인 연구 참여자 김철수(가명)는 A시에 거주하면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할아버지이다. 은퇴를 하기 전에는 방송과 관련된 학과의 대학교수로 재직을 하였고 현재는 손자녀 양육을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손자녀를 양육한 경험을 나누고 조언하는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 은퇴를 하기 전에는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손자는 1년간, 연구자가 출산 후에 몸이 좋지 않아서 외손녀는 9개월간 보조양육자로서 양육을 했다. 이 때에는 자녀의 집에 저녁 때 와서 아이를 봐 주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는 형태로 양육을 하였다. 예상보다 1-2년 정도 이른 시기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 후에는 연구자의 어머니가 다른 도시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외손녀를 만 5년 5개월을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주양육자로 손자녀를 양육하였다.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양육경험을 블로그에 육아일기로 남기고 자신처럼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강의를 하고 있다.

(1) 은퇴하기 전 손자녀 양육 활동

은퇴를 하기 전에는 오전에 출근하여 오후4시쯤 퇴근을 했다. 퇴근 후에는 집으로 와서 친손자를 약 오후4시부터 6시까지 돌봐

준 후에 친손자의 부모 집에 차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은퇴 하기 전에 외손녀의 경우에는 9개월 정도 돌봐주었는데 오후4시부터 밤까지 부인과 함께 외손녀를 봐 주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인은 딸의 집에서, 자신은 자기집에서 잠을 잤다. 이 당시에 손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주로 목욕을 시켜주거나 아이와 놀아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2) 은퇴 이후 손자녀 양육 활동

은퇴를 한 이후에는 친손자는 친손자의 외가에서 봐 주었기 때문에 외손녀만을 전담하여 양육했다.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외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자신은 따로 마련해 놓은 사무실에 가서 손자녀양육, 노년학, 유아발달이론 서적 등을 읽으며 공부를 했다. 6시에 외손녀가 집에 오면 그 때부터 다음날 어린이집에 갈 때가지 주양육자로서 외손녀를 보았다. 아침식사, 저녁식사를 스스로 준비하였고 밤새도록 외손녀가 우는 경우가 많아서 토막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다. 토막잠을 자는 틈틈이 책을 읽고 블로그에 양육일기를 썼다.

외손녀가 유치원을 가게 되었을 때는 오전 8시30분에 유치원에 가서 5시30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시간에는 전과 동일하게 사무실에서 책을 읽었다. 외손녀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는 집에서 외손녀와 놀아주고 함께 책을 읽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각자 할 일을 하기도 했다. 외손녀의 생활이 규칙적이고 딸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음식은 혼자 준비하지 않고 딸과 함께 준비했다. 그리고 외손녀가 잠도 잘 자

서 밤, 새벽 시간은 온전히 자신이 책을 읽고, 쉬고, 일기를 쓸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양육일기는 B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에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하였다.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262편의 일기를 썼고 현재도 계속해서 기록 중이다. 일기에는 손자녀를 키우면서 들었던 생각들, 손자녀가 보여줬던 신체적인 발달, 기억에 남는 말들, 손자녀를 향한 당부의 말 등을 기록하였다. 손자녀와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자신이 할아버지가 되면서 느꼈던 것들, 노인과 육아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해 나가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자신의 일기 형식으로 적어 놓은 부분들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외손녀에 대한 육아일기와 자신이 할아버지로서 느낀 점들을 적은 포스팅을 중심으로 보았다.

면담은 모두 6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1회에 약 30분에서 2시간씩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면담을 하기 전에 미리 양육일기 262편을 대략적으로 읽고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했다. 양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양육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은 상태에서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양육일기는 개인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경우 참여자의 허락을 맡고 자료를 접하였다.

초반부에 진행된 면담은 주로 은퇴 전후의 상황과 그 당시에 손자녀 양육을 시작했을 때의 상황, 그리고 양육을 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후에 진행된 면담은 초반의 면담 내용과 양육일기의 내용을 토대로 초기의 양육과정과 변화에 관련된 내용들과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웠던 점, 갈등했던 점

등에 대해서 물었다. 그리고 후반부의 면담에서는 양육을 계속해 온 입장에서의 양육에서 느낀 점, 자신에게 생겼던 변화, 강의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나 느꼈던 점 등에 대해 질문하고 강의자료(7편)와 기고글(3편)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이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짧은 면담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였다.

강의자료는 현재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할 예정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의 필요성과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기고글 역시 교육관련 매체에 동일한 주제로 기고한 것이었다.

3)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면담을 하면서 생각나거나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사항들을 적었다. 그리고 면담을 마친 후에는 전사를 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전사한 내용을 여러 번 읽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다음에 할 면담의 질문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면담 내용에서 육아일기, 강의자료,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경우 추가적으로 그것을 읽고 명확한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을 받았다.

계속해서 자료를 읽어 나가면서 반복되는 내용들을 추리고 그것을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는 은퇴를 앞두고 손자녀 양육을 시작하게 된 시기, 주양육자로서 손자녀를 양육한 시기, 손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변화를 맞이한 시기로 나누어서 각각의 시기에서 범주화하려고 했다. 은퇴를 앞두고 손자녀 양육을 시작한 시기는

어느 정도 시기를 특정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기를 나누어서 범주화를 하는 것이 용이하였으나 주양육자로서 손자녀를 양육한 양육 초기와 중기, 가장 최근의 시기는 시기적으로 나누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양육시간이나 패턴에 변화가 생긴 손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간 시기를 중심으로 나누어 범주화하였다.

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한 뒤에는 연구참여자에게 분석내용을 주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면담 내용과 기고글, 강의 자료를 함께 봄으로써 의미를 명확하게 포착해 내고자 했다. 연구 참여자에게 분석 내용을 주어 확인을 한 후에는 가족간에 말할 수 없는 내용이나 신변상에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 자신의 생각과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 참여자가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 내용들은 삭제하였다.

Ⅳ. 생애 전환기: 비자발적 은퇴와 할아버지 됨

1. '은퇴자'로서의 삶을 고민하기

1) '은퇴하면 뭘 하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예비은퇴자'들은 은퇴 이후의 자신의 일과 삶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길을 모색하게 된다. 과거 자신의 일과 미래의 일간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와 미래의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고찰한다. 이는 앞으로 남은 인생의 방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김철수는 은퇴하기 전에 지방의 한 대학에서 방송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였다. 학교 사정으로 인해 정년을 채우기는 힘들 것이고 몇 년 안에 은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은퇴를 하기 4-5년 전부터는 은퇴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 퇴직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한 두달만에 결정된 게 아니라 인제 쭉 직장 생활에서는 이 미래가 예측 거의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년은 힘들 것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갑작스럽다거나... 이거 뭐 어떻게 퇴직하면은 뭘 먹고 사는가를 걱정하기 보다는... 사실은 인제 그 퇴직의 징조가 인제 그 4-5년 전부터... 내가 퇴직을 하면은 무엇을 하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길을 많이 찾고 있었어.

은퇴를 앞두고 은퇴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

면서 가족들에게도 말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았다. 은퇴 이후의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돈을 얼마나 더 벌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남은 인생,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진짜 한 5년 퇴직하기 한 5년 전에 많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뭐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퇴직하고 나서 한 30년 정도 더 산다면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한 거야. 그렇다고 멍청하게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

은퇴 이후의 삶을 모색하게 위하여 처음 고려해 본 것은 '과연 현재의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다.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방송 관련 일이나 사진이나 영상 촬영 같은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을 계속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취미로 해 온 사진촬영은 그 분야에서는 '아마추어'이고 자신의 전공인 방송과 관련된 일에서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육체적으로 활동량이 뒤질 수밖에 없어서 승산이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 좀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육체적으로나 그 다음에 뭐 전문가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수십년 동안 그걸(사진촬영) 한 업을 했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마추어가 끼어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그거는 업으로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길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중략)…… 내가 그거는 승산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내가 그거는……. 그거(방송분야)는 한 번 또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기본에 대해서는 내가 괜찮지만 젊은 사람들만큼 아이디어가 산뜻하거나 현실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견주어가지고 활동량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은퇴 이후에 새로운 일을 찾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전공관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컨퍼런스에 참여해 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전공을 살려서 일을 계속해서 하기에는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았고 다른 분야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다.

> 사실 너한테는(약간 웃으면서) 말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중략)...그런 저런 다양한 길을 사실은 많이 모색을 했어.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걸 찾아보고 여러 사람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고 그러다가 ...그거는 내가... 좀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육체적으로나...

연구참여자는 '은퇴'를 하면서 기존에 속해 있던 직업세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은퇴'를 통한 이러한 이탈과 분리는 '이직'이 직장을 옮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더 이상 직업세계로 진입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큰 '단절'을 의미한다. 이러한 큰 '단절'은 '경제적인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은퇴 후에 새로운 직업을 갖기가 어렵고 만약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자신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업세계로의 진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는 장기간에 걸쳐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으나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은퇴 후에 그 직업세계로 재진입하기 어렵고 그 분야를 벗어나 다른 분야로 진입하는 것 역시 더 어렵다.

2) ‘은퇴하면 어떤 할아버지가 될까’

김철수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면서 ‘일의 영역’과 함께 생각한 부분은 ‘가정의 영역’에서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었다. 자식들이 다 결혼한 상태였고 자신의 은퇴 시기 즈음에는 자신이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할아버지가 된다면 나는 어떤 할아버지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시작했다. 이러한 고민은 할아버지로서 손자녀를 ‘양육’한다는 개념보다는 아직은 단순히 ‘어떤 할아버지가 될 것인가’라는 추상적인 ‘생각’에 가까운 형태였다. 연구자의 아버지가 생각하는 ‘할아버지’는 손자녀와 놀아주고 손잡고 다니면서 세상 구경하는 ‘자상한 할아버지’였다.

> 그 때 너하고 동생하고 다 결혼을 한 상태여서....(한참 뒤에) 그 때 .....(생각하면서) 그 때 결혼한 상태라서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애를 낳으면은 어떻게 내가 할아버지 노릇을 할 것인가 그게 인제 애를 키워준다는 생각보다는 처음에 내가 아 어떤 할아버지가 될 것인가를 사실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거지.
>
> (어떤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냐는 질문에) 자상한 할아버지. 손주가 놀아달라면 놀아주고 손주하고 같이 손 잡고 다니면서 세상 구경하고 그게 잘하는 거 같애.

‘어떤 할아버지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은퇴자이자 할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직 이러한 질문은 자신이 할아버지가 되는 시기는 은퇴와 거의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은퇴자로서 ‘할아버지’라는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은퇴자’와 ‘할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는 막연한 생각이었다.

직업세계에서는 '은퇴자'가 되고 가정세계에서는 '할아버지'가 될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김철수는 단순히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두 세계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그러한 생각이 명확해진 것은 아니었다.

'은퇴'를 함으로써 직업세계에서 가정세계로 진입하게 된다. '은퇴'는 또 다른 직업세계로의 진입에 대한 고민과 가정세계로의 진입을 동시에 가져온다. 연구참여자는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막연하게 두 가지 세계로의 진입을 동시에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양쪽 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민은 막연한 기대와 불안감에 머무르게 된다.

2. '할아버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1) '할아버지 노릇 제대로 해 보자'
: 보조양육자로서 양육을 시작함

은퇴하기 1년 전, 김철수가 57세 때에 친손자가 태어났고 같은 해에 외손녀도 태어났다. 손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막연하게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딸이 외손녀를 출산하게 되어서 부인과 함께 손자녀를 봐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김철수는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자상한 할아버지'의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손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 처음에는.....처음부터 내가 손주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보니까 인제 손자가 태어나고 손녀가 태어나면서 환경이 내가 애를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인제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한 번 이거를 괜찮은 거다, 내가 애를 키우면서 좀 잘 키워보자, 할아버지 노릇 제대로 해 보자! 내가 그 때 마음을 굳힌 거야.

김철수는 손자녀의 양육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손자녀가 '내 자식 핏줄이니까' 돌봐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자녀가 바쁘거나 아파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 베이비시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본적이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베이비 시터를 둔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정상적이지도 않고. 또 애가 내 자식 핏줄이니까 봐야된다는 그런 생각 한 거지.

손자녀양육의 시작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할아버지가 되어 기쁘고 손자녀에게 '자상한 할아버지'로서 잘 해주겠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끌었다. 즉, 손자녀양육의 필요는 단순한 할아버지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손자녀를 키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화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자녀의 자식'을 보살핌으로써 자녀의 경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2) ‘퇴근해서 집에 오면 같이 봐 주지’

손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직 은퇴를 하지 않은 ‘할아버지’의 역할은 ‘보조적’인 것이었다. 아직 은퇴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신이 손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은 퇴근 후부터 아이를 애엄마에게 데려다 주기 전 1-2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김철수는 은퇴를 하기 전에 자신의 역할을 ‘보조자’로 인식하고 퇴근 후에 양육을 도와주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생각했다. 그리고 ‘보조자’로서 퇴근 후 시간에 손자녀들과 놀아주고 움직이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 손자 양육은 애엄마(아내)가 주로 인제 낮에 애를 봐 주고, 나는 인제 퇴직하기 전이니까. 그 때까지 인제 집에 오면은 인제 뭐야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같이 봐주는…….

> (내가 하는 일은) 같이 주로 놀아주는 거. 예를 들면 엄마는 애들한테 먹여주고 뭐 입혀주고 인제 엄마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라면은 나는 인제 놀아주고 뭐. 손자가 인제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그런 거에 도움을 준 거지. 아직 어리니까.

김철수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담당하는 부분은 주로 ‘여자니까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음식은 여자인 애들 할머니가 담당하고 자신은 ‘힘을 쓰는 일’을 중심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일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 잠깐씩 필요한 부분을 요청할 때마다 그 부분을 ‘부차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주로 인제 애엄마(아내)가 여자니까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나는 예를 들면 애를 안아준다거나. 뭐 아니면 목욕할 때 잡아준다거나. 뭐 그런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또 뭐 우유를 타준다거나 뭐 이런 육아 전반에 다 도와준 거지. 다만 애 먹을 거 음식 장만하는 거는 내가 잘 못 하지만 그 때 내가 애 봐 주고. 그 때 내가 엄마 부엌일 할 때 내가 잠깐 봐 준거지. 힘쓰는 일을 중심으로 애를 계속 키워주는 거는 공동으로 키워준 거지.

애가 아주 갓난쟁이 때 울 때는 너거 엄마가 안아줄 수가 없어. 새벽이나 언제든간에. 그러면 새벽 한시든 두시든 자다가 깨면은 울면은 내가 안아줬지. 내가 달래줬지. 그러니까 우유는 너거 엄마가 먹일 수 있는데 울면은 한 시간 넘게 울면은 그냥 막 울어대니까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다 안아준거야.

손자녀가 태어나면서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게 될 때 남성 노인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 역할은 과거에 '아버지'로서 가정 내에서 담당했던 '부양육자'로서의 역할과 유사하다. 낮에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저녁 때 퇴근하면 아빠가 그 육아를 도와주는 방식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할아버지'에게도 적용된다. '부양육자로서 할아버지의 역할'은 여전히 가정내에서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에 머무른다. 아직 직업세계에 머물러 있는 '남성'의 역할은 시간의 제약과 전통적인 성역할의 인식으로 인해 손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부양육자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Ⅴ. 주양육자로서 ‘할아버지’ 되기

1. ‘내가 애를 전적으로 봐 줘야지’

1) ‘수입이 있는 사람이 일해야지. 내가 시간이 제일 많아’

은퇴 전에는 ‘보조양육자’로서의 위치에 머물러 있던 김철수는 외손녀가 생후 9개월이 되었을 때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외손녀가 태어나고 1달 뒤부터는 친손자는 친손자의 외가에서 키우고 외손녀만을 김철수 부부가 딸과 함께 거주하면서 키우게 되었다. 사위는 주말부부로 떨어져 있었고 딸은 출산 이후에 건강이 좋지 않아 딸을 잘 돌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외손녀를 전담하여 키워주던 김철수의 아내가 일 때문에 타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 김철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1년 일찍 은퇴를 하게 되면서 두 사건이 시기적으로 맞물리게 되었다. 아내가 외손녀를 ‘주양육자’로서 키워주웠었는데 아내가 타지역으로 가게 되자 현실적으로 외손녀를 ‘주양육자’로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손자녀를 돌보는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보조자’로서의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육아에서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와주는’ 역할만을 하면 됐었다. 그러나 주양육자로 아이를 키우던 아내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즉, 손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김철수는 외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김철수의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은퇴한 남성들은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남성의 일이 아니라 '여성의 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철수가 '주양육자'로서 외손녀를 키워주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 자기네들은 내가 그런 소리하면 자기들은 퇴직하면 절대 애 안 봐주겠다. 자기는 절대 안 한다. 다 그런 생각이지. 모르긴 몰라도 남자들은 특히 우리 세대는 남자들이 집안일을 하고 애를 키운다 이거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변에서 할아버지들이 된 남성 노인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김철수가 부인이 일 때문에 타 지역에 가면서 자신에게 외손녀를 돌보는 '주양육자'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은 '은퇴자'이고 부인은 아직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의 계획이 불확실하고 은퇴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보다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인이 경제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자신은 부인이 하던 외손녀 양육을 전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내가 퇴직하기 전에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겠다 돈벌이를 하겠다 구체적인 일이 사실은 떠오르지가 않았어.....상황이 그렇잖아..... 내가 인제 퇴직하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마침 또 엄마가 한 달에 조금이라도 수입이 생기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은..어떻게 사람을 한 달에 뭐 용돈이라도 한달에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돈 벌지 못하고 돈을 계속 써야 되고 애는 자라고..... 뭔가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내가 애를 봐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은퇴자로서의 할아버지는 직업세계와의 단절, 경제적인 수입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은퇴 이후에 경제적인 수입이 단절되고 가정에서의 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퇴자는 '할아버지'로서 손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은퇴 이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인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즉, 배우자인 아내는 직업세계에서의 경제활동에, 은퇴한 남성 노인은 가정세계에서의 손자녀양육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은퇴 이전까지 계속되어왔던 전통적인 성역할이 '은퇴'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남녀의 역할이 뒤바뀌게 된다.

2) '애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자신 있었지'

과거에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은 손자녀 양육에 '주양육자'로서 '겁 없이' 참여하게 하기도 한다. 김철수는 과거에 동생들과 자녀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었다. 동생들을 '업어서' 키우고 자녀들이 클 때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애 키우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이 '주양육자'로서 외손녀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겁 없이' 손자녀 양육을 시작할 수 있었다.

왠고 하면 나는 과거에 애를 키워본 적이..... 두 세대를 키워봤거든. 내 동생들.....내가 업어서 키웠봤고. 그 다음에 너하고 니 동생도 내가 클 때 많이 도움을 줬고. 그래서 그러니까 애 키우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

각했지 사실은. 겁 없이 시작을 한 거지.

그러나 김철수가 '애를 키우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신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든 일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기존에 부인이 여성으로서 담당했던 가사일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 즉, 자신이 이제까지 해 오던 우유 먹이고 목욕시키는 일을 감당한다면 지금까지처럼 충분히 손자녀를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 뭐 키우는 게 별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별거 아니다라는 게 가볍게 보는 뜻이 아니라 뭐 가사도우미를 한 일주일의 두 번 도움을 받으면은 뭐 애 우유 타 먹이고 목욕시키고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전에 아이를 양육해 본 경험은 손자녀를 주양육자로서 전담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남성으로서 주로 '힘쓰는 것'에 국한되어서 했던 제한된 아이 양육의 경험은 '손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역시 자신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3) '내 손녀를 포기하는 건 내 딸을 포기하는 거잖아'

김철수가 외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은 가장 큰 이유는 부인이 타 지역에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아픈 자신의 딸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

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손자녀를 돌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딸을 포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 그거는 애를 포기하는 거는 내 딸을 포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니가 건강이 정상 육체적인 건강이 정상적이라면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너가 애를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애를 손을 놔 버린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되는 거지. 있을 수가 없는거지. 그러니까 뭐 선택이고 뭐 이런 사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 엄마인 너도 살려야 되고 애는 정상적으로 잘 크니까 애는 또 이 문제 없이 잘 키워야 되는 그런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닥친거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고민 자체가 불가능한거야. 이거는. 의미가 없는거야.

김철수는 외손녀를 잘 돌봐주면 아이가 잘 크는 것을 보면서 아이 엄마가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손자녀를 돌봐 주는 것'이 곧 '자녀의 건강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김철수에게 외손녀를 돌보는 것은 '무조건 내 일'이고 자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었다.

> 이거는 무슨 사명감 무조건 이거는 내 일이다. 내 아니면은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은 어쨌든간에 애를 좀 제대로 챙겨주면은 니가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지.

이러한 이유는 김철수가 부인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상황에서 '주양육자'로서 외손녀를 키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철수에게 있어서 부인이 타 지역에 가 있고 딸이

아픈 상황은 자신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손자녀양육을 감당해야 할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심경이 매우 '복잡'했다.

> 복잡했지 그 때는. 심정이 복잡했던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다 내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거지.

>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애를 봐야 될 것인가. 그럼 딸은 언제쯤 되면은 괜찮아질 것인가. ……(중략)……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복잡하단 얘기야. 내 머리가 뭐 막 죽을 지경이다가 아니라 애가 누구 손에서 커야 될 것인가. 나는 그럼 애 양육에 얼만큼 기여를 해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복잡하지.

손자녀양육에 '주양육자'로서 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간과 참여의 범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양육자'로서 손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심적인 큰 부담감을 갖게 한다. 은퇴자로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건강 회복이 될 때까지 손자녀양육을 끝까지 책임지며 '전적인 헌신'을 해야 하는 상황은 은퇴 이후의 삶을 혼란스럽게 한다.

2. '남성 노인'인 '할아버지'로서의 한계

1) '토막잠을 잤지. 헌 데가 많이 났어'

김철수는 외손녀를 돌봐 주는데 하루 종일 혼자서 애를 보는 것이 무리가 되고 시간적으로도 손자녀 양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

게 되면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김철수가 '주양육자'로서 외손녀를 보기 시작했을 때 외손녀가 9개월이 되었을 때 집 앞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냈다. 외손녀를 오전8시에 어린이집에 보내서 오후 6시에 집으로 데리고 왔다. 실질적으로 김철수는 외손녀가 집에 있는 저녁 6시 이후부터 아침 8시까지 식사와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재우기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아마 결정적인 거는 엄마가 이 집을 떠나면서일거야 아마. 그러면은 내가 하루종일 애를..... 애하고 붙어 사는 거는 나도 많이 힘들고 부담이 스러우니까 나는 밤에만 애를..... 그러니까 어린이집 안 하는 시간에만 봐주면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한 거지.

외손녀가 깨어 있을 때 놀아주는 것은 별로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외손녀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새벽에 깨서 2-3시간씩 울고 보채는 일이 잦았다. 부인이 타 지역으로 떠나고 딸부부도 주말부부였기 때문에 실제로 주중에 외손녀를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인 자신밖에 없었다. 3년동안 이 생활패턴이 반복되면서 하루에 3-4시간씩 토막잠을 자게 되었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 풀타임으로 봐준거야. 밤시간에는. 애가 2-3시간씩 울어 새벽에.....그러면은 나밖에.....할 사람이.....그럼 어떻게 해 내가 해야지.....내가 하루에 잠을 한 3시간 4시간 자면서 애를 봐준거야.....토막잠을 자야되니까. 그래가지고 온 몸에 헌데가 나고. 굉장히 그거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

외손녀가 새벽에 자주 깨서 새벽마다 안아서 달래주어야 했지만 김철수는 외손녀를 자신의 옆에서 재우지 않고 애 엄마와 함께 자

도록 했다. 자신의 옆에서 외손녀를 재우면 자신은 편할 수 있지만 엄마와 아이간에 '모녀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해 주고 애엄마가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애가 옆에서 울면은 너가 잠자다가 깨면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일상생활이..... '아 내 자식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면은 정신적으로라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사실 난 그랬지. 안 그러면 내가 데리고 자는게 훨씬 편하지.

그럼 애는 울 때 엄마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엄마도 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모녀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그걸 끊어버리면은 생각을 해봐. 넌 하루종일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누워있다고 생각해봐 그거는 몸 아픈 것과 마음 아픈 게 같이 온단 말이야.

홀로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밤에 우는 아이를 돌보는 것은 남성 노인에게 있어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자신이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우는 아이를 달래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자녀와 손자녀의 모녀로서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것과 자녀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부분을 더 우위에 놓고 자신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감내해낸다.

2) '요리를 못하니까 손녀한테 미안해'

김철수가 외손녀를 키울 때 힘들었던 또 다른 부분은 '요리'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과거에 자신의 자녀들을 키울 때 아내를 도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를 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내를 '도와주는' 역할이었고 주로 '힘을 쓰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아내가 없고 딸이 몸이 좋지 않아 건강상의 문제로 요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철수는 살면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요리'를 해야만 했다. 요리를 해서 밥을 먹는 것이 외손녀와 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자신이 그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힘든 거는 애한테 좀 이 음식 장만이 내 사실 제일 힘들고 미안했던 거지. 사실 내가 음식을 잘 못 하니까 애한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힘든 거고.

그러니까. 이...이게 사실 내가 제일 힘든 일이었었어. 실질 내 마음 속에 제일 부담스럽고 지금도 마찬가진데.....애...뭐 애 먹는 거.....그리고 밑반찬은 아내가 해 주는 거 내가 가지고 가서 먹지만 안 그러면 가끔가다가 반찬 사 먹은 적도 있어.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손녀 밥이니까 사실은 이게 제일 제일 힘들은 것 같애. 내가 마음적으로.

'요리'는 거의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자신의 요리실력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의 아버지는 반찬을 자신의 아내에게 부탁해서 만들어 오거나 동네에 있는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사 먹기도 했다. 그리고 요리에 대해서 자신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딸에게 어떻게 하는지 물어서 '아바타'처럼 요리를 했다. 특히 자신과 딸, 외손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외손녀의 음식인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그러니까 손녀 이유식 같은 거는 애엄마가 옆에서 뭐뭐 코치하면 내가 인제 그대로 완전히 아바타. 요새 보면 이 아바타 셰프들이 있듯이. 애엄마는 인제 그런 거 레시피 가지고 뭐뭐 어떻게 하라고 하면 내가 직접 칼로 썰고 애 먹을 거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했는데.

임시방편으로 외손녀의 음식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면서 '요리'를 적극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자신이 살면서 거의 해보지 않았던 일을 이 나이에 새롭게 배운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와서 칼질을 할 때는 안경을 썼다가 다른 일 할 때는 안경을 벗고 하는 과정들이 번거롭고 힘들어서 지금에 와서 '요리'를 배우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 내가 직접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게 애한테 좀 미안하지. 그건 지금도 마차가지야. 내가 요리를 못한다는게 한편으로는 내한테 큰 아쉬움이기도 하면서 눈이 나쁘니까. 노안이 왔으니까 칼질 할 때는 안경을 껴야 되고 또 딴 일 할 때는 안경 벗으면..... 이게 음식할 때 그러면 온 안경을 끼면 안경에 뭐가 묻거든. 불가능해. 굉장히 어려워. 젊었을 때도 안하던 걸 갑자기...그걸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막 해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은 가정 내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인 '어머니'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여성인 할머니와 애엄마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남성 노인인 할아버지는 새로운 성역할을 배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평생 자신의 일로 인식하지 않았던 '요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요구받으면서 그것을 잘 수행해 내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잘해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그 일을 능숙하지 하지 못하여 손자녀를 잘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3. ‘기준’에 맞춰서 손자녀 양육하기

김철수는 외손녀를 양육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외손녀의 성장을 돕고 외손녀의 외적·내적 성장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은 유아교육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기준으로, 삶의 가치관·훈육 측면에서는 아이의 부모의 생각을 기준으로 양육하고자하는 특성을 보였다.

1)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 노심초사

김철수가 ‘보조양육자’에서 ‘주양육자가’되면서 아이의 성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이었다. 보조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도 아이의 성장에 관심은 있었지만 주양육자가 되었을 때에는 더욱 큰 관심을 보였다. 자신이 보조양육자에서 주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양육자로서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제대로 크고 안 크고의 책임이 부모가 아니라 아이를 대신 키워주고 있는 자신에게 일차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했다.

‘정상적인 성장’에 큰 관심을 보인 이유는 첫째로, 아이의 ‘골든타임’에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이에게 성장 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몸을 움직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나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육아의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는 성장한 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다. 따라

서 부모가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할 수 없을 때 조부모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손주양육을 위한 강의자료)

지금 태어나서 한 1년, 2년 사이는 성장과정 이게 정상적이냐 아니냐는 후에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꼭 체크를 해 본거야.

둘째로, 김철수는 할아버지가 애를 키워서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책임지고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정상적'으로 커 준다면 그것은 고맙고 기쁜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잘못되면 자신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주양육자로 부모 대신 키워준 자신의 잘못이 너무 크게 느껴져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손녀가) 남들처럼 성장하고 있는가. 엄마가 못 키우면 할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혹시나 애한테 좀 문제 되면 안 되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러웠던 거야.

내가 그래도 '엄마가 키우거나 할머니들이 키워준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애가 뭐 잘못됐다거나 뭐 부족한 부분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땐 아 감사하다 애가 참 그래도 내가 노심초사하면서 키웠는데 그 때 내가 보람도 느끼고 고마웠지. 사실 그 때까지가 내가 무지 긴장한 거야 지금에 와서 말이지만. 내가 키움으로 인해서 애가 뭔가 정신적으로라던가 발달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사용한 방법은 모두 세 가지였다. 그것은 ①유아발달이론 서적을 읽고 그 내용과 외손녀의 발달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②또래집단에서 정보를 얻

어서 외손녀의 발달 확인하기, ③블로그에 외손녀의 양육일기를 쓰면서 성장과정을 기록하고 자신이 공부한 유아발달이론들과 내용이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1) 유아발달이론 서적 읽고 확인하기

연구자의 아버지가 외손녀를 양육하면서 외손녀의 신체적·언어적 발달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읽기 시작한 책은 '유아발달이론' 서적이었다.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키우는데 내 생각을 함부로 적용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이론'을 공부해서 그 '이론'을 적용하고 그 '이론'대로 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잘 키우고 싶은 거지. 내가 내 자식을 키울 때는 내 아내와 그러니까 애 엄마하고 내가 둘이서 책임지고 키우는 거잖아. 두 사람의 책임 하에. 그런데 손주는 손주와 나 사이에 내 자식과 그 배우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아주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제도, 이게 이론이 아니면은 함부로 내 생각을 적용할 수 없는 거야.

유아발달이론과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유아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를 읽고 책에서 제시하는 '발달의 단계'를 자신의 외손녀도 '남들처럼'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것은 남보다 뛰어나다는 '우월성의 확인'보다는 '남들처럼 크고 있는가', '뒤지지 않는가'에 대한 확인이었다.

> 내가 애를 키우면서 유아에 관련된 책을 인제 계속 본 거지. 유아교육, 유아 발달 뭐 이런 거 쭉 인제 보면서 우리 애가 남들애처럼 정상적으로 크

고 있는가 신체 발달 언어발달 뭐 이런 거 지능 발달 이런 거 등등이 남들처럼 잘 크고 있는가.....

남보다 뛰어난 게 중요한게 아니라 남들만큼 가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애가 말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거 하면서 애가 남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거를 내가 본거지.

그리고 이러한 유아발달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외손녀의 성장을 확인한 후에는 그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을 외손녀를 양육할 때 적용해보기도 했다.

내가 자식들이나 동생들 키울 때는 그냥 키웠어. 키운 거고. 손주들을 키울 때는 내가 뭐 유아교육에 대한 거라던가 심리 발달 언어 발달에 관한 책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내가 키우고 있는 애 하고 이게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굉장히 비교하면서. 또 아 그 다음에 책에서는 이런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나도 애를 그렇게 좀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그 책에 나오는 걸 따라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지.

'주양육자'로서 외손녀의 신체·언어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경험이 아닌 유아발달 전문가들의 이론을 기준으로 삼는다. 유아발달 이론책을 읽고 전문가들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이 키우고 있는 손자녀의 발달에 '정상성'을 부여한다.

(2) 또래 집단에서 정보 얻기·비교하기

또 다른 정보를 얻는 방법은 '또래집단'이었다. 외손녀를 생후9개

월에 어린이집에 보낸 것은 자신이 체력적으로 힘든 이유도 있었지만 어린이집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래에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있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어린이집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래집단의 발달과 유의해야하는 일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 가면은 거기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애가 고 또래에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배운다는 거는 생활 이런 거...

밖에 나갔을 때 또래집단을 관찰하게 되면 또래집단의 행동발달을 알 수 있고, 또 그 또래집단과 함께 있는 양육자들에 의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또래집단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또래집단과 관련된 발달 정보, 필요한 것들 등을 알아야 그 또래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또래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이해한 만큼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철수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금 현재 상황에 꼭 맞는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자신이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또래집단과 다른 엄마들,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서 손자녀를 제대로 키우고자 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대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러대. 자기가 키우고 있는 사람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 연령대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야. 왠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인터넷. 방송,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젊은 엄마들 이야기 하는 거. 그것만 들어도 들린다니까.

외손녀를 양육하고는 있지만 이유식이나 그 연령대에 먹이면 안 되는 음식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김철수는 또래집단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에게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얻어 그것을 외손녀를 키우는 데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의 습득을 통해 자신이 외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때 내가 초기에 돌이 안 지났는데 감기 걸렸다고 꿀 먹이려고 했는데 꿀 먹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난 그건 몰랐던 거지. 왜 먹이면 안 되는가를. 그러니까 고 돌 전후는 돌 전후에 맞는 것만 집중해야지 맞는거야. 그 모든 정보 거기에 관한 정보를 받아야지 내가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거지.

그리고 예방접종과 같은 정보를 인터넷에 찾아봄으로써 현재 외손녀의 성장단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외손녀를 잘 키우고자 했다.

인터넷은 찾아보지. 그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예를 들어 애 예방접종해야 될 때는 지금 만약에 뭐 열달 됐을 때는 무슨 무슨 예방접종을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또 언제 해야되지? 뭐 이런 거 등 고런 거에 관심이 있지. 생각해봐 지금은 인제 애는 예방 접종이 거의 끝났어. 어렸을 때부터 받는 예방접종. 근데 내가 지금 뭐 소아마비 예방접종이니 이런 접종 자체를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성장 단계에 맞는 게 필요하다니까.

또래집단을 관찰하거나 또래집단의 부모, 인터넷으로부터 얻은 그 연령대의 정보는 유아발달이론과 같은 발달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전문가의 지식이 유아발달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라면 또래집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들은 각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현재 필요한 정보들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양육자'인 할아버지로서 김철수는 또래집단이나 인터넷에서 또래집단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을 통해서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 다른 또래들과 발달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외손녀의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 블로그에 양육일기 쓰기

김철수는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을 확인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외손녀에 대한 양육일기를 썼다. 아이의 성장, 특히 생후 1년간은 신체적·언어적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면서 자신이 공부한 이론에 맞게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아이가 그 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자신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부담감을 덜어내고자 했다.

블로그에 쓴 외손녀의 양육일기는 외손녀가 태어난 후 1개월후부터 2016년 2월을 기준으로 총 262편이 있다. 블로그에 양육일기를 쓰게 된 것은 애엄마가 출산 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아이를 대신 키워주게 되면서 아이의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대신 체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손녀와 함께 살게

되면서 외손녀의 행동을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기를 쓰기에 용이했다.

니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외손녀를 내가 많이 봐 줘야 된다는 생각에 아 이거는 기록해야 되겠다 생각한거지.

손녀는 내 집에서 계속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내가 걔의 일거수 일투족을 내가 계속 그 변화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걸 그래서 쓴 거야.

블로그의 초반 1년 동안의 양육일기는 유아발달이론에 맞추어 외손녀가 생후 1년간 중요한 신체적·언어적 발달을 언제 어떻게 보이는가를 확인하면서 작성하였다. 생후 1년 동안의 블로그의 양육일기의 제목들을 보면 '이가 나려는가 봅니다(생후 4개월)', '뒤집기를 위한 연습(생후 4개월)', '굴러서 이동하기(생후 5개월)', '옹알이를 하는 외손녀(생후6개월)', '외손녀의 배밀이와 무릎 기어가기(생후 6개월)', '일어서기 연습(생후 11개월)', '균형잡기 연습(생후 12개월)'등 유아발달의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을 알 수 있다.

기록을 하면은 인제 애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애가. 그러니까 내가 애를 보기 시작하니까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잘 키운다는 게 남보다 뛰어나게 우수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애한테 애 성장하는 과정도 좀 봐야 되고. 또 그리고 인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 좀 찾아봐야 되고 그걸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거지.

블로그에 양육일기를 작성한 것은 외손녀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기록인 것과 동시에 자신의 양육경험에 대한 기록이다. 김철수는 블로그 양육일기의 내용을 통해 외손녀의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양육경험을 돌아보고 자신이 외손녀를 '잘' 양육해 오고 있다는 확인했다.

김철수는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유아발달이론을 책을 읽음으로써 습득하기, 또래집단으로부터 발달에 필요한 정보얻기, 블로그에 외손녀의 발달과정을 기록하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유아발달이론에 관련된 책을 읽음으로써 그 전문지식을 '정상적인 성장'의 기준으로 삼고, 또래 집단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외손녀의 성장과정을 기록하는 행위는 과거 김철수가 은퇴하기 전에 교수로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오던 익숙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의 이러한 학습 성향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인 '독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전문지식을 기준으로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관찰했던 발달 정도를 기록하고 '정상적'으로 컸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2) '부모 기준에 맞춰서 키워줘야지'

김철수가 유아발달이론에 맞추어 외손녀를 '정상적으로 키우는 것'과 함께 '부모'의 기준에 맞춰서 키우도록 노력했다. '할아버지'인 자신은 아이의 부모를 '대신해서' 양육하고 있고 '한 다리 건너' 자식이기 때문에 아이의 부모와 자신간에 교육관의 차이가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지금 손주를 키우고 있는 거는 부모를 대신해서 키우고 있는 거란 말이야 양육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인제 이 손주는 내 친자식이 아니라 한 다리 건너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 키우면은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애 부모의 생각과 내 생각이 교육관이 차이가 났을 때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된다는 거야.

외손녀는 자신의 애가 아니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결정권은 '애 엄마'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화'와 '질문'를 통해서 '부모의 기준'을 확인하고 그 기준대로 아이의 양육문제를 결정하려고 했다. 외손녀의 엄마는 자신의 딸이지만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알 수 없고 자신의 기준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의사결정을 할 일이 있을 때) 그거는 항상 딸한테 물어보지. 사실은. 나도 생각은 있지만은 내 생각대로 안 해. 왠고하면 걔는 내 딸이 아니니까. 내 자식의 딸이니까. 내가 예를 들면 딸이 없으면은 내가 걔를 인생을 성장할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키운다면은 내 마음대로 해. 내 판단대로 하는데. 봐. 걔 엄마가 내 딸이긴 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반드시 똑같다는 법은 없어.

나중에 외손녀가 컸을 때 자신을 주로 길러주었던 할아버지의 양육기준과 엄마의 양육기준이 다르면 혼란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일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자를 사 줘도 될까 안 될까' 정도의 가벼운 문제는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자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제는 본인이 결정을 내

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 그러면 예를 들면 애가 어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키워놨다가 어느 날 주양육자가, 이제는 반반 왔지만, 내가 빠지고 인제 애엄마가 계속 애를 키울 때 '어, 할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혼동이 생긴단 말이야 가치관에. 판단기준에 혼동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지. 사소한 거는 자잔한 거는 그냥 내가 받아주지만 조금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내려야 될 부분은 절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할아버지'로서 자신이 현재는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아이 양육의 책임을 그 부모가 져야 한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기가 지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아이의 양육을 그 부모가 전적으로 맡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자신이 주양육자이지만 가치관과 연결된 큰 문제들의 결정권은 아이의 부모에게 넘겨줌으로써 후에 부모가 주양육자가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손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치관' 교육에 있어서는 자신의 역할을 제한하고 부모에게 그 결정권을 준다.

4. 은퇴자인 '할아버지'로서의 삶의 의미 찾기

은퇴 이후 보조양육자에서 주양육자로의 역할이 변화되면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험을 통해 은퇴자로서 했던 고민들, 양육과 관

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할아버지로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았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1) '애를 안 봤으면 내가 더 힘들었을 거야'

손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자신의 상당부분의 시간을 손자녀에게 투자하여 손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적으로 고되고 정신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양육을 한다는 행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일이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은퇴자에게는 더 힘든 일일 수 있다.

> 나도 그 때 사실은 막 60대... 막 60될 때까지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조금 인제 학교에서 빨리 예상보다 빨리 퇴직을 하게 되면서 마음 속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러나 김철수에게 있어서 외손녀에게 헌신하며 매달리는 삶은 오히려 은퇴자로서의 시름과 고민을 잊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외손녀를 주양육자로서 헌신적으로 돌보게 된 것은 자신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바쁘게 손자녀양육에 몰두하다 보니 은퇴자로서 고민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뭐 어떤 신세를 어쩌고 저쩌고 할 틈이 없는게 손녀하고 같이 사는 데 매달리다 보니까 내 문제는 어느 순간에 잊어버려. 진짜 그게 신기했더라고. 만약에 니가 안 아프고 내가 손녀를 안 봤다고 그러면은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많이 힘들었을거야.

은퇴자로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은 할아버지로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경제적인 활동의 단절과 재진입의 어려움 속에서 가정세계에서 자신이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은퇴자로 하여금 직업세계와의 단절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정세계에서의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애가 나를 제일 좋아하잖아'

김철수는 외손녀가 자신을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자신이 주양육자로서 아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는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 외손녀가 나를 제일 좋아하잖아. 내가 주양육자니까. 애들은 누가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해 주는지 금방 알거든. 내가 원래 주양육자가 아닌데...뭐 상황이 그러니까...애가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해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

자신이 사실은 보조양육자로서의 역할만 하면 됐었는데 부인의 타지역에서의 경제활동과 딸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주양육자의 역할을 떠맡게 되면서 외손녀가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꼈다. 그리고 외손녀의 그러한 반응이 자신이 열심히 외손녀를 양육한 것에 대한 하나의 '보상'으로 생각했다.

손자녀가 할아버지를 생각해주고 좋아하는 마음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아버지'로서 양육을 잘 해오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해 준다. 그리고 아이가 부모를 제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할아버지를 제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제일 좋아하는 손자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3) '손녀하고 노는 건 일이 아니라 힐링이야'

김철수는 은퇴 이후에 외손녀를 돌봐주면서 외손녀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낮 시간에는 개인 사무실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노인에 대한 책, 노인의 손자녀 양육에 관한 책을 읽으며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일을 했다. 외손녀를 돌봐주려면 자신이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서 외손녀를 돌봐 줘야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 이게 손녀를 키우면서 내가 외부활동을 스스로 많이 제약을 당하는 거. 예를 들면은 다른 지역을 멀리떨어진 데 가서 1박2일이나 2박3일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애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전혀 못하니까 그게 이제 좀 제약이고 아쉬운 경우이기는 한데.....

그러나 또 한 편으로는 김철수에게는 손녀를 봐 주는 시간이 일을 못하거나 공부를 못 하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외손녀를 돌보는 일이 한 편으로는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뺏고 제약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또 한 편으로는 자신을 '힐링'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러한 내가 시간제약 저녁에 와서 밤에 아무것도 계속 손녀하고만 요새도 그렇지만 계속 놀아주는 게 내한테는 그것도 하나의 힐링이 되는구나. 왠고 하면은 손녀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은 손녀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난 기쁘거든 사실은. 손녀가 뭐 할아버지하고 뭐 인제 어리광도 부리고 어떨 때는 육체적으로 막 이렇게 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없었다면은 내가 내가 손녀를 안 키운다고 해서 훨씬 더 많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해. 밤에 그 시간에 나는 딱 집에 오면은 쉬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손녀하고 노는 거를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거야.

외손녀를 키우면서 '힐링'이 된다는 생각은 외손녀가 성장하면서 서로 대화가 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수도 있고 또 함께 대화를 하면서 외손녀로부터 손자녀양육과 관련된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생각을 정리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앞으로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글을 쓰거나 강의를 준비할 때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까 낮에는 좀 아까 얘기했는데 집중을 하고 내 시간으로 집중할 수 있는거고 밤에는 손녀하고 그냥 같이 놀아주니까 그게 훨씬 좋지. 요새는 보면 손녀가 가끔가다가 스스로 책을 읽고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인제 뭔가 자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인제 그 시간이 조금 조금씩 이제 집에 와서도 책을 본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지. 근데 그 전에는 사실 난 새벽 한 5시 6시쯤 되면 일어나니까 손녀가 일어날 시간까지 2-3시간 정도 항상 책을 봐왔어요. 한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집에 와가지고 손녀하고 노는 게 내 인생에 마이너스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해. 오히려 내가 책에 보고 내가 글을 쓰고 하면서 손녀하고 놀면서 손녀로부터 영감을 많이 얻지.

손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함께 놀아주는 일들은 할아버지에게 있

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일이다. 손자녀양육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고 시간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정해진 시간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 시간에 손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그것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맞물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 결과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힐링'으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Ⅵ. 자신에 대한 이해와 손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

손자녀가 영유아기를 거쳐 유치원생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손자녀는 신체적·언어적 발달을 이룬다. 손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이의 생활습관이 규칙적이 되고 어른의 전적인 보살핌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성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손자녀의 양육자인 '할아버지'는 그간의 양육경험을 되돌아 보고 노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관심과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관심으로 그 관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손자녀가 보살펴 줘야할 대상에서 대화가 통하고 함께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1. '노인'으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영역 확장

1) '내가 노인이잖아, 노인에 대해 잘 알아야 돼'

김철수는 자신이 노인으로서 외손녀를 양육하면서 노인으로서 손자녀 양육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젊은 시절에 아이를 돌보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아이를 돌보는 상황은 비슷할지라도 아이를 돌보는 주체가 '노인'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노인'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노인이잖아 첫째는. 그건 내 아... 노인의 손자녀양육을 볼 때 왜 노인이랑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애를 키우는 것과 노인들이 애를 키우는 건 상황이 달라.

'노인'으로서 외손녀를 양육하면서 김철수는 자신처럼 '노인'으로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손자녀양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노인 전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노인의 손자녀 양육을 '노인이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그 현상 자체에 맞추기 보다는 노년 전반에 대해 이해해야만 노인의 손자녀양육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년학, 노인의 심리, 건강, 노인과 죽음 등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노인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노인들은 애 보는 게 귀찮아. 생각해봐. 지금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드는 사람이 애하고 붙어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 노인의 심리, 노인의 건강, 그 다음 노인의 경제사정, 노인의 이런 저런거를 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무슨 자, 후손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거지. 그거를 모르고는 강의를 못 해. 노인들이 자기 손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노인들은 손주 양육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종합적으로 봐야지 한 가지만 보면은 애 봐주는 요것만 보면은 굉장히 비참한 거야. 사실. 그러면 안 돼. 그래 나는 책을 참 이때까지 그런 쪽에서 책을 안 읽다가 그런 쪽으로 책을 많이 읽은 이유가 그거라니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건지.

노인으로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험은 '노인'으로서의 자신을 이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 나아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노인으로서, 은퇴자로서 손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고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른 노인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노년학, 노인 심리등과 관련된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해 나간다.

2) '손자녀를 키우는 할머니들과 친구가 돼'

김철수는 외손녀 양육을 하고 자신처럼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자신의 손자녀 양육경험을 다른 할머니·할아버지들과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노인에 대한 이론들, 유아발달이론들, 손자녀양육에 관한 이론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오랜시간 외손녀를 양육한 경험들을 토대로 강의를 하게 되었다.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 했다.

> 처음에는 어 할아버지가 손녀 손주를 키우는 걸 뭘 알아 하는 이런 분위기를 좀 하다가 그냥 당신은 이론적인 것만 아는 사람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 그런 분위기 삭 오면은 그 다음에 내가 손녀를 어떻게 키우고 내 손에 이 주부습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조금 내가 너하고 내 손녀 이런 얘기 좀 하면은 그 때는 할머니들이 내 친구가 돼. 그라면 끝나고 나면 차 사주면서 아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고 내한테 상담도 하는데.

김철수의 손자녀 양육 경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과 동질

감을 느끼게 했다. 손자녀를 현재 키우고 있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은 김철수의 이론적 배경보다 직접적인 경험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의 경험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며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김철수는 '주양육자'로서 외손녀를 먹이는 것, 입히는 것, 잠자는 것, 놀아주는 것을 다 책임지면서 다른 가정에서는 주로 할머니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경험하게 되었다. 기존에 맡아왔던 성역할의 차이를 넘어 손자녀를 '주양육자'로서 전적으로 키우는 경험은 현재 손자녀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깊은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자신의 손자녀양육의 경험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마음에 와 닿는 경험을 하게 된다.

2. 손자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

1) '내 인생의 동반자야'

김철수는 외손녀가 돌이 지나고 말하는 것이 늘면서 이제는 일방적으로 '필요'를 채움을 받는 대상에서 점점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로 변했다고 생각했다. 대화를 하면서 할아버지를 배려하는 말을 하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간의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점점 좋아지지. 대화가 통하는 거지 어릴 때는 태어나서 꼬마 때는 웃어주는 게 내한테 가장 큰 선물이었다면은 점점점점 커가면서는 할아버지하고 대화가 된다는 거야 무슨 뭐 자기 유치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일을 이

야기 해 준다거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해 준다거나, 안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이런 저런 뭐 배려의 말을 해 준다거나, 뭐 또 같이 책을 읽으면서 뭐 또 내용들을 이야기 해 준다거나 뭐 이런거. 인제는 뭐 같이 대화하면서 장난도 치고 게임도 하면서 인제 교감을 계속 하면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정도 깊어지고.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애.

이제 김철수는 외손녀와의 교감을 계속 해 나가면서 외손녀를 어떤 것을 해 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 '동반자'로서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 손주들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동반자적인 개념으로. 어릴 때는 내가 키워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절대적인 나의 도움이 필요했다면은 인제는 애가 서서히 할아버지를 염려하고 배려해주는 관계로 가기 때문에 동반자, 친구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 같애. 그게 큰 차이 같애. 갈수록 더 좋아.

아이의 인지적 성장과 함께 할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의 종류와 깊이가 달라지게 된다. 아이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던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마음에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정서적인 교감의 깊이가 깊어진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할아버지는 손자녀가 더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손자녀를 자신의 친구·동반자로 점차 인식하게 된다.

2)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어'

아직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손자녀의 존재는 '잘 성장하

고 있는지 확인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신체적·언어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어려도 '배울 것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젓가락질을 배우는 평범한 상황 속에서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하는 상황을 보면서 김철수는 포기하지 말고 연습하고 도전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 아 이제 젓가락질을 첫째 시작한 게 애가 저기 딱 두 돌 됐을 때 젓가락질을 시작을 했는데, 애는 남들이 하는 거를 막 따라서...애가 인제 젓가락으로 땅콩을 집어 먹었는 거야. 이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아 애들은 젓가락질 하다가 실수를 해도 자기가 계속 해가지고 성공을 하거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
> 내가 배울 게 뭐가 있는가 봤더니만 무엇이든지 미리 겁을 먹지 말라.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 그걸 배웠고, 그 다음에 직접 해 봐라. 그러니까 옆에서 남이 하는 걸 바라보는 것 하고 내가 직접 해는 것 하고는 천지차다 뭐 이런 거. 무슨 도전 하는 걸 겁내지 말자. 그러니까 애도 어린 애도 지금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하는데 어른들이 돼가지고 핑계대고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이런. 나름대로 자기 반성도 좀 있는 거야 이거는.

이러한 생각은 젓가락질 하는 것을 연습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배우게 된 점을 양육일기에 쓴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젓가락질을 연습하는 것을 보면서 할아버지로서 아이를 관찰하면서 배우게 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블로그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였다.

> 아이를 바라보며 배우는 할아버지
> 1. 무엇이든 미리 겁을 먹지 말라.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 2. 무엇이든 자신이 직접 해 보아라. 남이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자기가

직접 행동으로 옮겨 보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3. 아이는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 성장하면서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많다. 아이에게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4. 아이가 만3세가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할 수 있다. 물론 어른들이 다 가르쳐 준 것은 아니다.
5. 도전하는 자는 실수를 할지 모르나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당 부분 얻을 수 있다. 나이 많다고 함부로 포기하지 마라.

손자녀와의 대화는 할아버지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기도 한다. 할아버지는 손자녀의 양육 경험을 통해 손자녀의 성장을 보며 기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한다.

Ⅶ. 요약 및 결론

1. 요약

연구자의 아버지를 연구 참여자로 하여 '은퇴 남성의 손자녀 양육 경험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학습 양상에 관한 연구'를 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예비은퇴자'는 은퇴 이후의 경제활동과 경제활동 이외의 생활세계에서의 삶을 모색한다. 자신의 전공과 연계하여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다. 전공분야에서는 젊은 인력에 비해서 참신성이 부족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계속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은퇴의 시기는 '생물학적으로 할아버지가 되는 시기'와 맞물린다. 은퇴를 앞 둔 예비은퇴자는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만 아직은 막연하게 '자상한 할아버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에만 머무른다.

예상보다 이른 은퇴와 경제활동과의 단절, 자녀의 맞벌이, 자녀의 건강상의 문제로 은퇴자는 추상적인 '자상한 할아버지'에서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좀 더 적극적인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의 은퇴자의 역할은 아직은 주양육자인 손자녀의 할머니를 도와주는 역할에 머무르며 주로 남성으로써 '힘을 쓰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자녀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은퇴자가

‘할아버지’로서 주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신의 경제활동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손자녀를 혼자 전적으로 양육하게 됨으로써 전통적인 성역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모색해 나가지만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의 일보다는 과거의 자녀를 양육했던 경험을 되돌아보며 자녀의 회복과 손자녀의 성장을 위해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다.

아이를 기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남성 노인으로서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배우자가 경제활동으로 인해 부재하고 자녀 역시 건강상의 문제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손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새벽에 깨서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토막잠을 자고, 헌 데가 나고, 손자녀에게 요리를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해 손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체력적인 한계와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남성 노인’으로서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또 아이 양육에 있어서 자신을 ‘보조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의 부모를 대신해서, 자신의 배우자를 대신해서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자신의 역할의 범위를 고민하게 된다. 함부로 화를 낼 수도 없고, 어디까지 자신이 해 주어야할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아 혼란을 겪게 된다.

손자녀 양육에 있어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손자녀를 어떤 기준으로 키울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손자녀가 과연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인가 노심초사하게 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손자녀가 자랄 수 있도록 유아발달이론 서적을 읽고 그 이론을 토대로

손자녀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또래집단에서 정보를 얻음으로써 손자녀가 또래집단과 유사한 발달을 보이는지, 그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필요를 채워준다. 이러한 내용들을 블로그에 양육일기의 형태로 손자녀의 발달내용과 함께 기록함으로써 손자녀가 그 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손자녀를 기르는 또 다른 기준은 아이의 ‘부모의 기준’이다. ‘부모의 기준’이란 신체적·언어적 발달의 기준이 아닌 아닌 삶의 가치관·교육관을 말한다. 손자녀의 양육책임이 지금은 ‘주양육자’인 할아버지에게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손자녀의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치관의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부모의 기준’에 맞게 손자녀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모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에게 ‘결정권’을 주고 아이의 문제를 선택하게 한다.

은퇴자인 ‘할아버지’로서 손자녀를 주양육자로 양육하는 일은 상황적인 여건에 의해 일어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손자녀를 양육하는 데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은 은퇴자인 ‘할아버지’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자녀를 양육한 경험은 은퇴로 인해 경제활동의 단절과 상실감을 경험한 ‘할아버지’에게 잠시 그 어려운 상황을 잊고 현 상황에 몰두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주양육자로서 힘들었지만 자신을 가장 좋아하는 손자녀의 반응을 보며 자신이 손자녀를 잘 키운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손자녀와 노는 시간이 ‘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쉴 수 있게 해 주는 ‘쉬는 시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느낀다.

손자녀가 성장해 감에 따라 은퇴자인 ‘할아버지’의 손자녀 양육

경험도 더 많아지게 된다. 손자녀 양육 경험이 쌓이면서 노인인 자신에 대해 고찰하게 되고, 노인으로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관심의 영역이 확장된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하게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마음 깊이 공감하고 자신의 양육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된다.

손자녀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게 된다. 과거에는 손자녀를 '필요를 채워줘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지만 대화가 통하고 할아버지와 손자녀로서 많은 교감을 나누면서 서로를 '동반자'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존재에서 '배울 것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손자녀가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자신의 삶에 받아 들이고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2. 결론

1)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은퇴'

남성 노인에게 있어서 '은퇴'는 직업세계에서 이탈하여 단절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은퇴'라는 사건은 인생에서 한 번은 경험하는 사건이지만 은퇴 이전과 은퇴 이후의 삶이 연속선상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김나연 외, 2007: 6) 이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Atchley, 1976).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삶에서도 은퇴는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은퇴 이전과 은퇴 이후의 삶이 연속선상에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은퇴를 함으로써 직업세계에서 이탈하여 직업세계와 단절이 되었지만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직업세계로의 재진입을 준비한다. 자신의 원래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민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한다. 이러한 고민들은 은퇴 이전과 이후에 일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은퇴자이자 할아버지로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은퇴를 함으로써 직업세계와 단절이 되었을 때 배우자는 여전히 직업세계 속에 있음으로써 기존에 하던 성 역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신의 은퇴와 배우자의 비은퇴는 현재 가정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구참여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은퇴 이전에는 맞벌이를 하더라도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 즉 경제활동을 주로 하고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단절되고 가정에서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여성의 역할로 여겨지던 요리와 같은 새로운 역할을 학습하고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된다.

기존의 은퇴 이후의 삶에 관한 연구들은 은퇴 후의 삶에 적응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가족이라고 보았다(임병우 외, 2013; 김명자 외, 2005; 이승원 외, 2008).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은퇴 이후에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손자녀 양육에 '주양육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은퇴' 이후에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바로 가정세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은퇴 이후의 삶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손자녀를 돌보면서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고 또 이것을 통해서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을 모색하게 하는 등 은퇴 이후의 삶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 할아버지로서의 손자녀 양육 경험과 학습

남성 노인의 손자녀 양육은 최근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여성의 49.5%가 고용되어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10가구 중 4가구에 해당한다(통계청, 2015). 현실적인 필요성에 비해서 기존의 손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할아버지들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는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할머니들과 함께 '조부모'로서 연구되어 왔다.

조부모들이 손자녀 양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부분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이다.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핏줄을 보살펴 주고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는 있지만 양육과 가사를 병행하면서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적으로 손자녀양육에 매여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김희동, 2013; 이화진, 2004; 진지혜·안정신, 2012).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역시 은퇴 이후에 수입이 없고 시간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아픈 딸을 도와주기 위해 손자녀 양육에 참여한다. 토막잠을 자고 요리를 못 해서 애를 잘 못 먹여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클지 노심초사한다. 외손녀가 자신을 좋아해주고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만족감을 느끼지만 '정상적인 기준'대로 키우고 있는지 항상 고민한다.

본 연구과 기존 연구들의 차이점은 연구참여자가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외손녀를 양육하면서 손자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자신과 자신과 같은 노인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단순히 손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다가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을 배려해주는 '동반자'로서 손자녀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의 성장 과정을 통해 자신의 노년의 삶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도 한다. 그리고 노인으로서 손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한 후에는 노인으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처럼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른 노인들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인 '독서',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은퇴 이후에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아버지들은 직업 세계에서의 이탈 후에 가정 세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 받음으로써 새로운 학습 상황에 놓이게 된다. '손자녀 양육', 보조 양육자가 아닌 주양육자라는 새로운 경험은 기존의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의 습득, 부모-자식간이 아닌 할아버지-손자녀라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할아버지들은 기존에 자신이 직업세계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해 왔던 익숙한 방식으로 학습해 나가게 된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은퇴 남성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험에서 나타나는 학습 양상을

연구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아직 조부모의 손자녀양육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할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할아버지의 손자녀 양육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아직 이것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할아버지의 손자녀 양육에 관한 본 연구는 할아버지의 손자녀 양육 경험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은퇴 이후의 할아버지들의 손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이다. 손자녀 양육은 남성 은퇴자들이 가정 세계로 재진입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중에 하나이다. 남성 은퇴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성 은퇴자들의 재취업,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적응·만족도에 관한 연구들과 함께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의 재정립과 손자녀양육이라는 새로운 경험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은퇴자들의 삶의 일부분을 드러냄으로써 은퇴 이후의 삶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은퇴 남성 1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은퇴의 상황과 그 이후의 가정에서의 삶의 맥락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할아버지들의 손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유진·한경혜(2004). “한국여성노인의 생애사분석을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인생전환점, 삶의 맥락, 적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99-126.

곽영순(2011). 질적 연구-철학과 예술 그리고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기영화(2011). 노인교육의 실제, 서울: 학지사.

김나연·김성희·정은하(2007). 남성노인의 은퇴 후 삶의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한국가족복지학, 21(0): 1-35.

김명자 외(2005). 남성퇴직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2):143-158.

김애순·윤진(1995). 은퇴 이후의 사회·심리적 영향, 한국노년학회, 15(1):141-158.

김은주·서영희(2007).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실제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75-192.

김유미·김명희·정여주(2008).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양육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접근, 사회복지연구, 38: 123.

김윤주·방미란(2011). 손자녀를돌보는할머니의경험, 질적연구, 12(1):59-72

김정원·송경수(2015). 조기퇴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전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22(4): 207-223.

김희동(2013).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노동부(2008). 한국의 정년현황실태와 정년연장을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연구.

배진희(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29: 67-94.

선태무·최은수(2012).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에 대비한 평생교육정책 분석과 정책개발 탐색, 평생교육·HRD연구, 8(1): 83-105

성미애(1999).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 후 적응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성미애·옥선화(2004). 여성 퇴직자의 퇴직 후 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교직·공무원 퇴직자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6(2):55-91.

안희란·김선미(2015).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에 대한 할머니들의 해석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9(1): 93-109.

원미라·이선희·김현경(2012).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근거이론적접근,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5(1): 39.

이가옥·이지영(2005). 남성 연소노인의 은퇴 후 적응과정과 노년기 조망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1): 93-120.

이승원 외(2008).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지 12(1): 107-124.

이영숙·박경란(2013). 조부모됨에 대한 주관적경험연구 ,주관성연구 , 26-109.

이해숙·신효균(2013). 남성노인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효학연구 17:

이효선(2006). “질적 연구에 의한 한국 노인들의 삶의 이해”, 노인복지연구 31(1): 73-99.

이화진(2004). 조손세대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조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임병우 외(2013). 고학력 남성 베이비부머의 정년퇴직 후 심리적 특성변화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케어복지학, 18: 97-132.

정은경(2009). 생후 36개월 미만아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되기 경험의 의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87-108.

조용환(2005).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서울: 교육과학사.

진지혜·안정신(2012). 유아의 기질과 조부모 양육 스트레스간의 관계, 한국노년학 32(4): 85-106.

최가영 외(2001). 노년기근로자의 퇴직현상에 관한 심층적 연구, 한국노년학, 21(1): 73-92.

통계청(2015). 2014년 사회통계조사 주요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통게청(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국노동패널조사(2003). 중고령자부가조사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맞벌이 가구의 영아양육을 위한 조부모 양육지원 활성화 연구.

한경혜·주지현·정다겸(2009).생애과정관점에서 본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배제경험과 적응, 한국가족복지학, 26-87.

한숭희(2005). 포스트모던 시대의 평생교육학. 서울: 집문당.

_____(2009). 학습사회를 위한 평생교육론. 서울:학지사.

한정란(2010). 노인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한혜경(2003). 조기퇴직자의 우울감과 영향요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81-100.

Atchely, R. C. (1971). Retirement and leisure participation:

continuty or crisis? *The Gerontologist*, 11(1): 13-17.

_____ (1976). *The Sociology of Retirement*. New York: Schenkman.

_____ (2000).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9th ed. Belmint, CA: Wordsworth.

Merriam, S. B., & Caffarella, R.(1991). *Learning in adulthood.* San Francisco: Jossey Bass.

Merriam, S. B.(1988). 허미화 역(1994). 질적 사례연구법. 양서원

Packer, M.(2011). The Science of Qualitative Resear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Spradley, J. P.(2006). 신재영 역(2006), 참여관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Thomas, J. L.(1989). "Gender and Perceptions of Grandparent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9,* 269-282.

Abstract

A study case on the Grandparenting Experience of an Older Man

Jun Sat Byul
Lifelong Learning,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structure of the older man's experiences as a primary caregiver to grandchildren who their children are working couples.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ing: 1) How does a grandfather experience when he raises his grandchildren as a retiree?, 2)How has he changed while he has been grandparenting as a primary caregiver? 3) How is the experience of grandparenting expanded? To answer these three questions, Qualitative research has been used. The participant of this case is an older man who was retired early and has been grandparenting, who lives in A city.

The stories of his grandparenting has been collected for six times and his grandparenting diaries, his lecture materials has been read for several times. The meaning of the grandparenting and his feelings as grandfather and retiree has been analyzed.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he, who were retired early, started to do grandparenting with worries about the future, and he thought that he was not a main caregiver at first. He thought that he is just a "good grandfather" not a "caregiver".

As his wife moved other city because of her job and his daughter was sick, he played the main role as caregiver. First, he played a main role of caregiver because he didn't make money, had a lot of time and experiences of caregiver.

Second, he had many difficulties because his weakness as an older man. He felt very tired and guilty for not helping his grandchild especially cooking. He tried to overcome it. He tried to fill his lack of knowledge of cooking and child caring by asking his daughter, searching internet and watching TV programs. Third, he tried to care his grandchild by "normal standard". He worried about his grandchild's normal development. So he read many books of infant development and searching informaion about caregiving. He wrote many posts on his blog of her developments. And he checked the "normal development" of his grandchild. He asked his daughter about her standards of raising her daughter and let her raise her daughter as her values. Fourth, he had many meanings of grandparenting. He forgot his worries about retirement when he cared his grandchild. As she loved him most, he was thankful of her and satisfied with grandparenting. And he felt that she healed him as she cared him.

As these changes are over and over, the experience of grandparenting were expanded. First, he was interested in himself as a older man and other older men at the same time. And he and other older men shared their experiences of grandparenting. Second, he and his grandchild talked each other and they felt they are friends. And he learned by his grandchild when he watch her acts and words. He thought his grandchild as a partner and teacher in some of part, though he had thought his grandchild as a baby who need to care and to be checked.

This study implies that this will help other person who studies older men as main caregiver, because there are few studies about older men as main caregiver, and that it is useful to understand grandparenting as learning.

.....

keywords : Grandparenting, Grandfather, Raising Grandchildren, Early Retirement, Older men, Older Learner

Student Number : 2005-23689